

*Congrégations of the Company of Pastors in Geneva,*” in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35, No. 3 (Fall, 2004), 651–670.

Wulfert de Greef, 1989, *Johannes Calvin, Zijn werk en geschriften*, Kampen: De Groot Goudriaan, = 1993,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trans. by Lyle D. Bierma, Grand Rapids: Baker Books, = 볼페르트 더 흐레이프, 2006, 『칼빈의 생애와 저서들』, 황대우 & 김미정 공역, 서울: SFC, 이 책의 수정증보판이 이미 출판되었으며 조만간 수정증보판의 한글번역도 출판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Philip Edgcumbe Hughes, ed. & trans, 1966,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Robert-M, Kingdon, ed, 1962, *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II, 1553–1564, Genève: Droz,

엘시 맥키, 2011, 『칼뱅의 목회신학』, 이정숙 역,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박경수, “16세기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 선발과 훈련에 관한 연구 – 한국교회의 목회자 위기 극복을 위한 모색,” 『장신논단』 44권 2호 (2012), 173–198.

### 3. 영국의 설교연구회

Joel R. Beeke & Randall J. Pederson, 2006, *Meet the Puritans: With a Guide to Modern Reprints*,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Joanne Joe Jung, 2007, “Conference: Rediscovering a Communal Tradition of Puritan Piety”,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M. Knappen, 1939, *Tudor Puritanism: A Chapter in the History of Idealis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lliam Perkins, 1617, *The Works of William Perkins II*, London: John Legatt, W. van 't Spijker & R. Bisschop & W.J. op 't Hof, 2001, *Het puritanisme, Geschiedenis, theologie en invloed*, Zoetermeer: Boekencentrum.

## 제네바 목사회의 '성경공부모임'(Congrégations)에서 평신도들의 역할

에릭 드 부르(Erik A. de Boer, 캄핀신학대학교(Broederweg) 교수)  
번역: 김미정(전문번역가)

매주 금요일 열린 제네바 콩그레가시옹(congrégations, ‘집회들’을 뜻하지만 모임의 성격을 반영하여 이후로는 ‘성경공부모임’으로 번역함)은 목회자들의 말씀 훈련과 교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교회의 평신도들도 성경 공부 모임에 정기적으로 출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어떤 평신도들이 참석하였고, 이들과 인도하는 목회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 도시 안에서 이 평신도들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무엇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에 따르면 때때로 장인들도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였지만, 교사, 의사, 변호사 그리고 인쇄업자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제네바 태생들과 프랑스 망명인 모두가 모임에 출석하였다. ‘성경공부모임’ 내에서 평신도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참여는 평신도들의 개혁 신학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 교회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경공부모임’<sup>1)</sup>

성경공부모임은 제네바와 그 주변 지역의 모든 목회자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모인 교회의 교육기관이다. 매주 금요일, 주 교회인 베드르(St. Pierre) 교회에서 이른 아침에 예배를 마친 후 모임을 가졌다. 1541년의

교회법(Ordonnances ecclésiastiques)은 이 공부 모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목회자들을 선출할 때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이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올바른 질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모든 목회자들이 교리의 순수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중 정해진 날에 성경 모임을 갖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sup>2)</sup> 말씀의 종들을 시험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교회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출석에 관해 정하고 있다. “누구도 합법적인 이유 없이 결석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태만한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강력한 권면을 받아야 한다. [제네바] 시장의 관할 영역에 속한 마을들의 설교자들은 가능한 자주 출석하도록 권한다. 그러나 이들도 한 달을 모두 결석한다면, 병이나 혹은 합법적인 출석 불가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태만으로 간주된

1) 이 글은 제네바에의 ‘성경공부모임’에서 제시된 모든 글을 망라해주는 포괄적이고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Ioannis Calvini opera omnia denuo recognita (Geneva: Droz, forthcoming)와 칼빈의 제네바 시절에 열렸던 주간 성경공부모임의 역사적 연구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성경공부모임’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John Calvin, *Deux congrégation et exposition du Catéchisme*, ed. Rodolphe Peter, Cahiers de la 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38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4), ix-xx; Erik A. de Boer, “Jean Calvin et Esaie 1 (1564): Edition d'un texte inconnu, introduit par quelques observations sur la différence et les relations entre congrégation, cours et sermon,” *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80 (2000): 371-95; idem, “The Congrégations: In-Service Theological Training Center of the Preachers to the People of Geneva,” in *Calvin and the Company of Pastors*, Proceedings of the Calvin Studies Society 2003 Colloquium (Grand Rapids: Calvin Studies Society, 2004).

2)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이후로는 권 수와 페이지 수를 붙여서 CO라고 표기함), 10a: 18, 96, “Or comme il fault [1561: ainsi qu'il est requis de] bien examiner les ministres quant on les veult eslire, aussi fault il avoir bonne police à les entretenir en leur devoir. [1561: pour quoy faire] Premierement sera expedient que touz les ministres, pour conserver pureté et concorde de doctrine entre eulx, conviennent ensemble un jour certain [1561: de] la sepmaine pour avoir conference des escritures...”

3) CO 10a: “et que nul ne s'en exempte s'il n'a excuse legitime. Si quelq'un y estoit négligent, qu'il en soit admonesté. Quant à ceulx qui preschent par les villages dépendans de la seigneurie, qu'on les exhorte [1561: que nos Ministres de la viUe les ayant à exhorter] d'y venir toutes les fois qu'ilz pour ront. Au reste s'ilz defaillent ung moys entiere, qu'on tienne ceUa pour negligence trop grande, sinon qu'il y eust maladie ou aultre empeschement legitime.”

다.”<sup>3)</sup> 목회자들은 출석해야 했다. 그러나 이 모임은 대중에게 개방되었고 평신도들이 빈번히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매주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이들은 누구였고 그들이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 제네바의 ‘성경공부모임’은 1525년 성경공부를 위해 취리히(Zürich)에 설립된 ‘예언회’(Prophezei, 프로프차이)를 모체로 생겨 난 것들 중 하나이다. 정기적인 성경공부를 제네바에 소개한 사람은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이었을 것이다. 예배적 환경에서 연속강해(lectio continua) 방식으로 성경책들을 공부했다. 불가타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70인역(the Septuagint)의 본문들을 토론했고, 라틴어와 독일어로 명상함으로써 예언회를 마무리했다. 이 모임의 학문적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sup>4)</sup> 취리히와 마찬가지로 제네바도 목회자들이 성경공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런 성경 공부 모임들은 16세기에 다양한 환경에서 생겨나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하여 갔다. 프랑스에서는 1562년 장 모렐리(Jean Morély)가 그의 책 『기독교 훈련과 정치에 관한 논문』(Traité de la discipline et police chrestienne)에서 민주주의 형식의 교회 체제를 옹호하였다. 그 결과 교회의 모든 회중들이 이런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였다. 필립 드니(Philippe Denis)는 이런 현상을 제네바 ‘성경공부모임’ 안에서 목사들의 우세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비판으로 간주하였다.<sup>5)</sup> 모렐리는 개혁주의 진영에서 반체제 목소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런던에 거주하던 네덜란드 망명인 교회는 조금 더 민주적인 형태의 성경공부모임을 결성하였고, 이 안에서 평신도들은 더욱 활

4) Fritz Büsser, “Wie und wenn man Züriych angehept die Biblisch Lection in dryen sprachen lsen,” in *Die Prophezei: Humanismus und Reformation in Zurich*, ed. Fritz Büsser and Alfred Schindler (Bern: Peter Lang, 1994), 7-9; Gottfried W. Locher, *Die Zwinglische Reformation im Rahmen der europäischen Kirchengeschicht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161-63.

5) Philippe Denis, “La Prophétie dans les Églises de la Réforme au XVIe siècle,” *Revue d'Histoire Ecclésiastique* 72 (1977): 305.

발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바로 전 주일의 설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가 있었다.<sup>6)</sup> 요하네스 아 라스코(Johannes à Lasko)와 마르틴 미크론(Marten Micron)은 각각 교회 법규에서 이것을 증언하였다. 프랑스 피난민으로 구성된 런던 교회의 성경 공부는 제네바 '성경공부모임'과 유사했다.<sup>7)</sup> 평신도들의 성경공부 형식은 1570 이래로 신교도들의 '설교연구모임'(prophesying)으로 이어져 발전하기도 했다.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나란히 여기에 참여하였다.<sup>8)</sup>

제네바 '성경공부모임'에서 평신도들은 어떤 위치였을까? 이 연구는 성경공부 내에서의 목회자들의 참여와 역할을 평신도들의 그것들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참여와 역할을 그려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다수의 교회 성도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합쳐서 약 50에서 60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60이란 숫자는 칼빈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그는 세바스티앙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의 행동과 관련하여, 1544년 5월 30일 금요일의 '성경공부모임'에 대해 파렐에게 보

6) Denis, "La Prophétie," 289-316. 네덜란드에서의 발전을 보려면 다음 참조. F.A. van Lieburg, *De reformatische profetie in de Nederlandse traditie* (Apeldoorn: Willem de Zwijgerstichting, 2001).

7) 니콜라 데 갈라르(Nicolas des Gallars)에 의해 수정된 교회법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Forma politiae ecclesiasticae, nuper institutae Londini in coetu Gallorum* (1561), in *Vluchtig voorbeeld: De nederlandse, franse en italiaanse vluchtelingenkerken in Londen, 1568-1585*, ed. Owe Boersma ([Nieuwerkerk]: O. Boersma, 1994), 261-74, esp. 266-67.

8) Denis, "Le Prophétie," 310-11; Patrick Collinson, *The Elizabethan Puritan Movement* (1967; repr., Oxford: Clarendon, 1990), 168-76.

9) CO 11:721 (no. 554). 칼빈과 카스텔리오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Hans R. Guggisberg, *Sebastian Castellio 1515-1563: Humanist und Verteidiger der religiösen Toleranz*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7), 40-41; William G. Naphy, "Calvin's Letters: Reflections on Their Usefulness in Studying Genevan History," *Archiv für Reformation Geschichte* 86 (1995): 67-89, esp. 78-86.

고한 적이 있었다. "어제 우리의 성경공부 모임에는 60명의 사람들이 출석한 듯 보입니다."<sup>9)</sup> 50명은 1551년 10월 16일 '성경공부모임'에서 제롬 볼섹(Jerome Bolsec)의 비판을 증언할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보아 나온 숫자이다. 31명의 평신도 이름이(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룬) 명단에 나와 있다.<sup>10)</sup> 그 해에는 이 도시에 8명, 그리고 변두리에는 10명의 목회자들이 있었고,<sup>11)</sup> 이를 다 합치면 약 50명의 참가자를 추측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를 알려주는 유일한 사건이다. 이것은 '성경공부모임'의 40%는 목회자고 60% 혹은 그 이상은 목회자가 아님을 알려준다! 목사회회는 성경공부에 관심이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둘러 싸여 있었던 것이다.

'성경공부모임'의 기록이 있는 글을 보면 평신도의 참여는 해설의 방법 선택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1559년과 1562년 사이의 모임에서는 그랬다. 모세의 마지막 네 권을 위한 성경 공부는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되었고, 칼빈은 동료들을 위한 연구 계획서에서 이 방법을 옹호하였다. "주제가 너무나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임은 명확한 순서를 정해서 가야 할 듯 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모세가 성령에 의해 했던 말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성경 공부에 참석한 사람들은 쉽게 따라 올 수 있을 것이며,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사와 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더 잘 배울 수 있게 될 것 입니다."<sup>12)</sup> 이처럼 모임에서 평신도들은 충분히 고려되었다.

목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만 다른 정기적 참여자들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알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일하는 시간에- 사람들은(남자나 혹은 여자) 누구였을까?<sup>13)</sup>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이들은 모임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했을까 아

10) CO 8:185-86.

11) William G. Naphy,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58 (도표 7).

니면 그저 수동적으로 참석만 한 것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매주 제네바에서 열렸던 ‘성경공부모임’의 참가자들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참석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었고, 그래야만 할 이유도 없었다. 도시나 혹은 변두리 지역의 목회자들은 참석 해야 했다. 평신도들의 참여는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었다. 구두로 이루어진 낮은 수준의 정기적 단체 모임은 역사에 좀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비정기적인 모임이 성 베드로 교회당의 한 방에서 열렸을 때만,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을 엿볼 기회가 있다. 성경 공부 모임에 관한 자료는 아주 희귀하지만, 일관성이 있다

목사회 회의록(the Registers of the Company of Pastors),<sup>14)</sup> 그리고 16세기에 출판된 책들에서 발견되는 몇몇 증언자료들이 그 사용된 자료들이다. 1542년에서 1564년 사이의 교회치리회 회의록(the Regis-

12) Manuscrit français 40a, Bibliothèque Publique Universitaire, Genève: fol. 133a-b: “Or les loix sont esparses (comme d[es]ja nous avons dit). Elles ne sont pas toutes escrites d’un fil c[ontinuel] n[on] par certain ordre. Autant en est-il des autres livres. On verra là des sentences qui appartiennent à la doctrine, et puis il y avoit des histoires meslées. D’autant donc que les choses sont ainsi entrelacées, il a semblé bon à nostre compagnie de suivre un ordre cert[ain]. Non pas que nous attentions de rien changer en ce qui a esté di[ct]é à Moÿse par le Saint Esprit, mais c’est à fin que d’orenavant ceu[x] qui peuvent hanter les congregations, puissent avoir une certaine adresse et qu’ils cognoissent mieux [133b] comme ils doivent lire tant les histoires que la doctrine qui sont ainsi entremeslées. Tant c’en faut donc que ceci soit pour empescher qu’on ne Hse ce qui a esté escrit par un prophete tant excellent et princi pal entre tous ceux qui ont vescu souz la Loy, que plustost c’est à fin qu’on se puisse bien guider et que les choses soyent cognues plus familièrement. Car beaucoup ne font que vaguer en lisant Exode, d’autant qu’ilz sont proccupez seulement de ce qui est là dit. Mais quand nous le liron, il nous faut mettre la doctrine à part et nous faut aussi Hre l’histoire à part.”

13) 여성의 참여는 단 한 차례만 관찰된다. 이들은 155년 12월 18일 선택(election)에 대해 열린 특별한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하였다. 두 명의 목사들이 청중을 “나의 형제요 자매들”(Mes freres et soeurs)[CO 8:130-31]이라고 지칭하였다.

14) *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hereafter RCP), vol. 1: 1546-1553, ed. Jean-François Bergier (Geneva: Droz, 1964); vol. 2: 1553-1564, ed. Robert M. Kingdon, Jean-François Berger, and Alain Dufour (Geneva: Droz, 1962); *The Registers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trans. Philip E. Hughes (Grand Rapids: Eerdmans, 1966).

ters of the Consistory)에는 ‘성경공부모임’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지만, 사건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sup>15)</sup> 1551년 있었던 제롬 볼섹의 기소 사건의 증인 명단이 이 사건을 이끌어 가는 발단이다.<sup>16)</sup> 볼섹이 예정설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금요일 오전 모임에서였다. 그의 재판이 열리면서 증인 명단이 작성 되었고, 이것은 역사가들에게 ‘성경공부모임’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의 이름을 제공해 주었다.

## 증언들

‘성경공부모임’의 평소 모습은 어떠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성경공부에 참석하기는 했으나 제네바 목회자 그룹에는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두 증언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콘라드 바디우스(Conrad Badius)의 증언으로, 인쇄업자인 그는 매주 열리는 공부에 정기적으로 참석한 평신도였다. 두 번째 증언은 제네바를 거쳐가던 도망자, 전직 이탈리아의 추기경 피에르 파올로 베르게리오(Pier Paolo Vergerio)에 의한 것이었다.

바디우스는 1558년 발행한 『여러 편의 설교들』(Plusieurs sermons)에서 ‘성경공부모임’의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칼빈의 설교 모음집은 1550년 ‘성경공부모임’에서 제시한 요한 복음 연구의 서문을 포함하고 있다.<sup>17)</sup> 바디우스는 성경공부 모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주중에 한 번 모이는 교회의 모임으로 목회자들이 각자 돌아 가며 성경의 구절들을 설명하는데, 설교 형식이라기 보다는 강의 형식입니다. 하나님

15) *Registres du Consistoire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vol 1: 1542-1544, ed. Robert M. Kingdon et al. 에서(Geneva: Droz, 1996); vol. 2: 1545-1546, ed. Robert M. Kingdon et al. (Geneva: Droz, 2001). Vol. 1 is translated as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vol. 1: 1542-1544, trans. M. Wallace McDonald (Grand Rapids: Eerdmans, 2000). 아래 제시된 예시들은 더 나중에 등장한 것들이다.

16) CO 8:185-86.

17) CO 47:461-84.

의 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실 때,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했습니다.”<sup>18)</sup> 목회자 중 한 사람이 해당 구절들을 심도 있게 설명하며 리더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처음 반응도 목회자에게서 나왔다. 평신도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거나 토의에 참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제를 정리하면서 토의를 끝내고 모임의 기도를 인도했던 사람은 칼빈이었다.

두 번째 증언은 피에르 파올로 베르게리오에게서 나왔다. 이 전직 추기경은 1549년 이탈리아에서 탈출하여 1552년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에 정착하기까지 잠시 동안 제네바에 머물렀다.<sup>19)</sup> 1550년 7월 칼빈은 이 망명인의 제네바 입성을 보고하였다. 1550년 베르게리오가 경험한 제네바 종교개혁을 전하는 “편지”는 인쇄업자 콘라드 바디우스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 둘은 성경공부에서 만났을 것이다. 다음은 성 베드로 교회당(St. Pierre)에서 열린 ‘성경공부모임’에 베르게리오가 참석한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매주 금요일에는 가장 큰 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여기에는 목회자와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읽고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성령이 주신다고 생각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고 네 번째 사람이 능력 닿는 대로 주제에 참여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목사뿐 아니라 청중들도 이와 같이 한다. 이런 방식으로 비율이 고린도

18) 콘라드 바디우스의 『여러 설교들의 서문』에서: “Or par ce mot de Congregation, j’enten une cer taine assemblée de l’Eglise qui se fait un des jours de la sepmaine, où un chacun des Ministres en son ordre expose quelque passage d’Escriture, plus par forme de leçon que de predication; et cela fait, s’il y a quelqu’un des autres à qui l’Esprit de Dieu ait revelé quelque chose faisant à l’intelligence et esclairs sement de ce qui a esté proposé, il luy est libre de parler” (CO 35:591-92)

19) 1549년 11월 그리발디(Gribaldi)는 칼빈에게 소개 편지를 보냈지만(CO 13:448, no. 1304), 정작 이탈리아 주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어간에 베르게리오는 칼빈을 만나서 프란체스코 스피에라(Francesco Spiera)의 역사에 관한 소책자에 서문을 부탁했다.

교회에서 보았던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모임 때 각 사람이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한 것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그가 침묵하고 앉으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고린도 전서 14:29-30].<sup>20)</sup>

여기서 다시 한 번 평신도들에게도 성경과 관련된 교리를 해설하고 토의하도록 허락 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음에 개혁 신앙을 품고 있는 인쇄업자나 제네바에 관심이 있는 유력한 피난민들은 매주 열린 성경공부를 찾았다. 다른 정기 멤버나 혹은 우연한 방문자는 누가 있었을까? 그들 모두 엘리트 집단이었을까 아니면 그 도시의 일반인들이었을까?

## 장인들

교회치리회 회의록은 교회치리회와 일반인들과의 접촉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필자는 평신도들의 성경 공부 참석을 보여주는 두 이야기를 발

20) Pier Paolo Vergerio, “Epistola del Vergerio, nella quale sono descritte molte cose della Città, è della Chiesa di Geneva,” 15 July 1550 in *Bibliographie des éditions de Jean Crespin 1550-1572*, vol. 1, ed. Jean-François Gilmont (Verviers: P. M. Gassen, 1981), 7 (50/11). “Ogni settimana nel Venerdì fanno nella maggior chiesa la congregazione, nella quale v’intervengono tutti questi ministri, è molti del popolo: è quivi uno de essi legge un testo della Scrittura, è con brevità lo espone, è poi un altro vi dice sopra quello, che alui detta lo Spirito, è se pare ad un tergo, è ad un quarto di aggiungerui alcuna cosa è in suo arbitrio di farlo, è non solo de ministri, ma di ciascheduno de quegli, che sono venuti ad ascoltare, è cio è fatto ad imitatione di quello che in Paulo si vede de Corinthe, la done egli dice, che ogn’uno poteva dire, quando i FrateUi si congregavano, quello che a lui lo Spirito rivelava, è poi taceva, è sedeva è par lava un altro.”

21) 1559년 2월 21일 “Aime, filz de Nicollas du Nant, de Lancyez”는 거주민(habitant)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음을 참조- P. F. Geisendorf, *Livre des habitants de Genève* (1549-60) (Geneva: Droz, 1957), 1:151. 1562년 2월 20일 뒤 낭(Du Nant)은 “Jaques, son petit enfant”과 함께 시민(bourgeois)이 되었다; 다음 참조. *Le livre des bourgeois* (Geneva: J. Jullien, 1897), 271. 자크(Jaques)의 직업은 사뤼(chapuy)로 되어 있다.

전하였다. 론(Rhône)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bridge)로 생계를 이어가는” 목수, 에메 뒤 낭(Aymé du Nant)은 금요일 오전 정기 모임의 참석자였다.<sup>21)</sup> 그가 더 이상 출석하지 않자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 했다. 1548년 존 칼빈과 아벨 푸팽(Abel Poupin) 목사를 중상 모략한 자크 듀발(Jaques Duval)과 관련하여 교회치리회는 그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뒤 낭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위협을 가한 사람이 두발로 밝혀졌다.

어느 금요일 성 제르베 교회당(St. Gervais)에서 설교를 들은 후, 그는 ‘성경공부모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있었고, 자크 듀발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동일 직업의 파리 사람-를 돌아 오는 길에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공부모임’에 가서 10시까지 머무는 것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그를 몰아 세웠고, 가난한 사람은 차라리 일을 하여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뒤 낭은 자신도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진심으로 일을 하러 가고 싶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sup>22)</sup>

22) CO 21:431-32, *the Registres du Consistoire*, vol. 4, fol. 49 (Thursday, 16 August 1548)에서 가져옴. 로버트 킹던(Robert M. Kingdon) 팀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Aymé Dunan bourgeois daguyer demorant sur le Pont. Est comparus, lequel a esté interrogué qui c'est qui l'a diverty de hanter la paroUe de Dieu et la congregation come il souloit jadis faire. Et que le Consistoyre s'esbayt grandement de ce que il est teUement changé que il semble qu'il n'aye plus nulle affection à la paroUe de Dieu. [IV, 49v] Surquoy ledit Dunan respond que il ne laisse de porter affection à la paroUe du Dieu, sachant que c'est la lampe du fideUe pour l'esclairer: item la voye par où le chrestien doit dirger ses pas. Mais une fois, corne il avoit ouy ung vendredy le presche à Saint Gervais et après alla à la congregation où il demora assez longuement, quant il fust retournè, voicy ung home qui se nome Jacques Duval, parisien et de son mestier, lequel le redarguoit, disant que c'estoit affaire de quelque riche home d'aUer aux congregations et y demorer jusques à 10 heures, et quant seroit bien meilleur qu'il travaillast pour norrir ses petis enfans, veu qu'il estoit povre. Et ledit Aymé luy replicqua que il vouloit bien travailler pour norrir ses petis enfans, mais que pour cela ne larroit de suyvre la parolle de Dieu tandis que Dieu luy en feroit la grace.”

이것이 장인이었던 뒤 낭이 교회치리회에 전한 증거 전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으로 두 가지가 분명해진다. 첫째, 제네바의 가난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금요일 오전 프랑스로 진행되는 모임에서 환영 받았고, 이들 중 일부가 참석하였다. 프랑스인 뒤 낭은 일하는 시간에 열린 모임에 자주 참석하였고 그의 동료 목수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두 번째, 일하는 낮 시간은 더 부유한 계층이 선호하였다.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평신도들은 더 높은 계층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1556년 “샤를 볼랑(Charles Volland)의 아내, 니콜(Nycolle)”이라는 여인이 하인과 함께 교회치리회에 [자크] 더부와비여([Jaques] Deboyville)를 고발하였다.<sup>23)</sup> 그가 리본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속였으며, 그 후 성적으로 접근하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인은 3주 전 자신의 남편이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했을 때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증언하였다.<sup>24)</sup> 교회치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 장인이 자신의 아내가 가게를 돌보는 동안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샤르트르(Chartres) 교구의 물장(Mulsans)에서 태어난 옷장식품 제작자(esquilletier)”인 그녀의 남편 샤를 볼랑은 1551년 9월 4일 거주민(habitant)이 되었다.<sup>25)</sup> 그들은 옷 장식이나 혹은 바지와 조끼를 이어주는 리본을 만들어 팔았다.<sup>26)</sup> 남편이 성경 해설을 듣는 동안, 아내는 가게에서 손님(Sr. Deboyville. 드부와비여 씨)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하인인 장(Jean)이 그녀를 위해 증언할 수가 있었다.

23) Geisendorf, *Livre des habitants*, 1:39: “Jaques de bouville, natifz deVernon,” 1554년 9월 17일자.

24) Registres du Consistoire, Archives d'Etat de Genève (이후로 AEG), vol. 11, fol. 38r: “Laquelle dictz que le Sr Deboyville l'a eu exortè, que ung vendredi environ 3 semaines, sependant que son mari estoit en la congregation, ledit Deboyville l'exortoyt en marchandant des aguillettes.”

25) Geisendorf, *Livre de habitants*, 1:19

## 서민이 주도하는 모임

성경을 해설하고 설교를 하도록 부름 받은 목회자들이 항상 토의를 이끌었는데, 한 명의 목회자에게 이 임무가 주어졌다. 이론상으로는 참석한 모든 사람이 말하거나 질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우위는 평신도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흔적은 있을까?

평신도들도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유사한 형식의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게 해달라고 요청이 두 차례 있었다. 1555년 초,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형제 몇몇이 목회자들에게 매주 금요일 정오에 자신들이 돌아가며 성경 구절을 제안하고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들은 로마서에서 시작하였습니다.”<sup>26)</sup>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성경공부모임’은 아침 예배 후 9시에 시작되었고, 그 후에는 목사회의 업무회의가 이어졌다. 이 회의는 자주 저녁 이후까지 계속 되었다. 그들의 희망은 받아들여 졌지만, 주도권은 얻지 못한 듯 하다.

이 년 후, 유사한 요청이 제기되었다. 1557년 첫 금요일(새로운 시작으로 적절한 날이라고 여겨져 선택했을 것이다), “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즉, ‘성경공부모임’에], 이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훈련 받고 싶어하는 다수의 저명한 사람들에 의해 토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토의의 형식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해졌다. “인도자(le respondant)가 사도들의 편지에서 토론

26) “Aiguillette: Petit cordon ou ruban ferré aux deux extrémités, servant à fermer ou garnir un vêtement, nottamment à attacher les chausses au pourpoint”; E. Huguet,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 au seizième siècle* (1928-29), “제네바 실크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식품(passementerie)의 제조이다- 즉, 리본, 장식용 술, 끈, 테두리 장식, 꼬아 만든 술, 그리고 옷이나 가구에 쓰이는 다른 장식들”; Anne-Marie Pizuz와 Liliane Mottu-Weber에 의해 인용된, *L'économie genevoise de la Réforme à la fin de l'Ancien Régime XVIe-XVIIIe siècles* (Geneva: Société d'histoire et d'archéologie de Genève, 1980), 437-45, by Jeffrey R. Watt, *Choosing Death: Suicide and Calvinism in Early Modern Geneva* (Kirkville, MO: Truman State University Press, 2001), 137.

27) RCP 2:59.

할 결말을 끌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히브리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sup>28)</sup> 필리베르 그레네(Philibert Grené)가 제비 뽑기에 의해 최초의 발제자(proposant)로 지명되었다. 인도자(respondant)가 발언을 한 후에, 각 쟁점 부분마다 칼빈이 정리를 하였다.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런 토의는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 달 첫 번째 금요일마다 열기로 결정되었다. 2년 전의 제안처럼 주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월 단위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계속되는 요청은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첫째, 매주 열리는 ‘성경공부모임’에서 평신도들은 안정된 동반자로 드러났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시간을 원했을 만큼 중요한 그룹이었다. 두 번째, 목사들의 감독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했다.

평신도들을 위한 특별 ‘성경공부모임’에서 최초의 발제자로 선출된 사람의 일대기를 살펴 보면 금요일 아침 성경 공부에 참석한 사람들의 신분이 드러난다. 르 샤틀레-슈르-루와르(Le Chartié-sur-Loire (Nivernais)) 출신이며 선택된 왕족(a royal élu)인 필리베르 그레네는 프랑스에서 탈출하여 1553년 제네바에 도착하였다.<sup>29)</sup> 드 라 프로망테.(De la Fromentée)라 불리는 그의 아들 필리베르 주니어(Philibert Jr.)는 1558년 목회자가 되어 보르도(Bordeaux)로 파송 되었고,<sup>30)</sup> 1560년에 결혼을 위해 돌아온 후 다시 보르도로 갔다. 그는 1562년 종교 전쟁 중에 사망하였다.<sup>31)</sup> 아버지 필리베르는 1553년 4월 6일에 거주민(habitant)이 되었고 1556년 1월 16일에는 시민(bourgeois)이 되었다. 그는 1571년이나 1572년에 사망하였다. 그레네는 로랑 드 노르망디(Laurent de

28) RCP 2:70.

29) J.-A. Galiffe, *Notices généalogiques sur les familles Genevoises depuis les premiers temps* (1829; repr., Geneva: Slatkin, 1976), 7:229-30.

30) Cf. 1558년 5월 6일 보르도(Bordeaux) 교회가 칼빈에게 보낸 편지; CO 17:158, no. 2863.

31) Robert M. Kingdon, *Geneva and the Coming of the Wars of Religion to France* (Geneva: Droz, 1956), 36-37, 144.

Normandie)의 조력자로서 여러 차례 출판물을 재정적으로 도왔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자였을 것이다.<sup>32)</sup>

목사회 회의록에서 “필리베르 그레네(Philebert Grenay)”를 발제를 위해 선출된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분명치가 않다. 아들 필리베르가 목회자로 훈련 받았다는 사실은 그를 정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에 포함시킨다. 1559년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을 때, 교수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sup>33)</sup> 학생들과 목회자 후보들도 여기에 함께 했을 것이다. 그러나 평신도들을 위한 특별한 형태의 토론이 조직되었다고 해서 아버지 필리베르 그레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세 가지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해 보자. 우선 아버지 필리베르 그레네는 매주 열리는 ‘성경공부모임’에 무척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공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싶어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학교가 설립된 후 이 모임을 찾아왔고, 마지막으로 아들 필리베르와 보르도의 동료들은 그 곳에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유사한 정규 모임을 만들었다.<sup>34)</sup>

### 종교적 외톨이들

때때로 매주 열리는 공부 모임은 독특한 사람들을 끌어 들였다. 이 사람들은 ‘성경공부모임’을 발판으로 종교적 지배층에게 다가가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것은 때때로 소동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특별 모임이 소집 되기도 했다.

32) Jean-François Gilmont, *Jean Crespin: Un éditeur réformé du XVI<sup>e</sup> siècle* (Geneva: Droz, 1981), 49.

33) *CO 10a:85*.

34) 1561년경 그레네(Grené)가 칼빈에게 보낸 편지 참조 (*CO 19:229-30*, no. 3683). 1560년 12월 4일 그레네가 칼빈에게, (*CO 18:256-57*, no. 3286), 1561년 8월 7일 제네바 목사들에게(*CO 18:597-98*, no. 3471), 보르도 교회의 확산에 관해 쓴 낱짜를 알 수 없는 편지(*CO 20:485-86*, no. 4208).

1542년 리용(Lyon)에서 온 카르멜회 수도사는 제네바에 도착하자마자 목사로 받아 들여지기를 희망하였다.<sup>35)</sup> 칼빈은 목회자들의 반응을 편지에 적었다. 미래의 설교자를 희망하는 이 사람은 금요일 아침 공부에 참석하였으나, 사도바울의 말을 왜곡한다고 간주 되었다. 이로써 초기에는 ‘성경공부모임’이 전직 신부 혹은 목사 후보자들의 성격과 신학을 시험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553년 10월 16일 아벨 푸팽은 시의회에 “라 뮐러”(la Meule) 주점에 한 사람이 등장해 자신을 그리스도이자 위대한 예언가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불경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up>36)</sup> 그는 “성경공부모임”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였다.<sup>37)</sup> 이것은 아마도 교회 예배 중이나 혹은 금요 성경공부 중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1554년 9월 21 금요일, 한 스코틀랜드 사람이-여전히 그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나타났다.<sup>38)</sup> 그는 형제들과 계시를 나누고 싶어했다. 또한, 모든 고백 안에서 평안과 일치를 가져다 주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세 명의 ‘성경공부모임’ 회원들로부터 질의 응답을 받아야 했고 그의 일은 이 결과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관대하면서도 인내심 있게 때로는 즐겁게 그이 이야기를 청청하였다. 소명이나 혹은 환상을 가진 종교적 외톨이들은 성경공부를 자신들의 사상을 나눌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았다.

정기적 방문객 중에는 학교선생이나 의사들과 같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확실히 밝히기도 했고 독립

35) *CO*, 11:396-403, no. 397, 칼빈이 리용에 있는 신자들에게.

36) La Meule inn은 Geneva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La Madaleine 교회 맞은 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교회의 채플 하나는 한 여관주인이 헌정한 것으로 푸른 배경에 마구를 단 노쇠와 보라색 옷을 입은 천사가 금빛의 플래스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Emil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1 vols. [1899-1927; repr., Slatkine Reprints, 1969], 3:242).

37) *CO 21:543* (transcription of the *Registres du Conseil*, vol. 36, fol. 98).

38) *RCP 2:57* 그리고 n. 3.

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The Rive 학교의 경영자였던 세바스티앙 카스텔리오는 1544년 5월 30일의 '성경공부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목사 직분에 지원했으나 거절당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군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이르러 그는 자신이 목회자들에게 받은 처사에 대해 감정이 폭발하였다.<sup>39)</sup> 의사 제롬 볼섹이 금요 아침 모임의 또 다른 방문자이다. 카스텔리오와 볼섹의 사건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볼섹의 경우는 조금 더 살펴볼 가치가 있다.

### 볼섹 사건

전직 카르멜회 수도사 제롬 볼섹은 파리(Paris)의 소르본느(Sorbonne)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545년에 프랑스에서 탈출하여 이탈리아 페라라(Ferrara)의 공작부인 르네(Renée)의 궁전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는 의학을 공부하였고, 1550년 제네바 근교의 베니(Veigny) 마을에서 자크 드 부르고너(Jacques de Bourgogne)와 올란드 브레이드로드(Jolande Brederode)-칼빈의 절친한 친구들인-의 주치의가 되었다. 볼섹은 그 도시에 살지는 않았지만 1551년 초에 최소한 두 차례 목사회 '성경공부모임'을 방문하였다. 이 때 그는 제네바 목회자 중의 한 사람인 아벨 푸팽에게 편지를 보내 칼빈과 다른 목사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싶

39) CO 11:21, no. 554, 1544년 5월 칼빈이 파렐(Farel)에게. 이 '성경공부모임'은 편집자에 의해 날짜가 5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다. 한스 구기스베르크(Hans R. Guggisberg)의 다음 기록은 잘못 되었다. "Der Text war ohne Zweifel mit Bedacht und Absicht gewählt worden"; idem, *Sebastian Castellio* 참조: *Humanist und Verteidiger der religiösen Toleranz*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7), 40. '성경공부모임'에서 성경 읽기의 성경 본문은 연속강해(lectio continua)에 있다. 비록 카스텔리오(Castellio)에게는 판두우프르(Vandoeuvre)에서 조력자로서 설교의 의무가 있었지만 목사는 아니었다(Guggisberg, *Sebastian Castellio*, 31, 40 참조).

고 전했다. 편지는 남아 있지 않지만 분명히 볼섹은 신학적인 논쟁들을 주고 받았을 것이다. 칼빈의 전기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그를 토론에 초대하였고 예정설에 관해 토론을 했다.<sup>40)</sup> 이 교류는 분명히 볼섹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10월 16일 그는 다시 한 번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였다.

장 드 생 앙드레(Jean de St. André)는 금요일 아침, 요한복음 8장 47절을 주제로 내어 놓았다. 다음으로 기욤 파렐이 발언했다. 공개 토론을 통해 볼섹은 예정설을 비판하며 이것은 제네바 특히 칼빈의 가르침이라고 비난하였다. 볼섹이 발언을 하는 동안,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던 칼빈이 들어와 이 의사의 비평과 맞섰다.<sup>41)</sup> 여기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보안책임자(lieutenant, 경찰서장이며 검사) 장 들 라 메조뇌프(Jean de la Maisonneuve)가 나서서 즉시 볼섹을 체포했다.

1551년 말, 의사 제롬 볼섹에 대한 공판 기록 중에서 검사 측 증인들-목회자들 외에도-의 명단이 모두 10월 16일 '성경공부모임'에 제출되었다.<sup>42)</sup> 26명의 참가자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고 4명은 주소만 기재되어 있었다(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검찰은 분명히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총 30명의 평신도들은 특정한 날이 아닌 통상의 성경 공부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고유한 견해를 보여준다. 특별히 지정 되지 않은, 다시 말해 볼섹의 개입은 일상적인 '성경공부모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다음은 증인들을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40) CO 21:73, 겔 11:19 와 36:26와 관련하여. (cf. RCP 1:100). 감동을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한 볼섹 자신의 설명은 CO 8:153-5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볼섹 사건은 다음 참조: CO 8:143-248; RCP 1:80-131; Doumergue, *Jean Calvin*, 6:146-61; Philip C. Holtrop, *The Bolsec Controversy on Predestination, from 1551 to 1555*, vol. 1 (Lewiston: Edwin Mellen, 1993).

41) CO 21:73.

42) CO 8:184. 명단은 185-86에 기재되어 있다.

## 제네바에서 출생한 시민들

세 명의 증인은 제네바 가문 출신이었다. 첫 번째 증인은 “장 들 라 메종 뇌프 씨”(Sire Jehan de la Maison Neufve)였다. 그는 제네바 상인 보 디송 들 라 메조뇌프(Baudichon de la Maisonneuve)의 아들로, 1543년 파렐이 최초의 개혁주의 설교를 한 후, 봉기를 이끌었다. 장(Jean)은 1520년대 초반 제네바에서 태어났고 시 업무를 통해 경력을 쌓아갔다. 1547년에 200인회에 의석을 얻었고, 1551년에는 감사관(auditeur) 즉 경찰서장의 부관이 되었다. 그는 1555년에 장 페르네(Jean Pernet)와 함께 시행정장관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칼빈파로 그 힘의 균형이 옮겨지던 교회치리회에 봉사하게 되었다.<sup>43)</sup> 1551년 10월 16일 모임에 참석했던 그는 볼섹을 체포했던 사람이었다.<sup>44)</sup> 여러 사건에서 아미 페렝(ami Perrin)의 반대편에 섰던 장 들 라 메종 뇌프(Jehan de la Maison Neufve)는 칼빈의 옹호자로 헌신했다. 그는 1557년 다소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두 번째 증인은 “장 페르네 씨”(Sire Jean Pernet)이다.<sup>45)</sup> 그는 1544년과 1546년<sup>46)</sup> 사이에 교회치리회에서 장로로 봉사하였고 1555년에는 장 들 라 메조뇌프(Jean de la Maisonneuve)와 함께 시행정장관과 소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해 다시 그는 교회치리회에 들어갔다.<sup>47)</sup> 볼섹의 재판에서 페르네는 귀족들의 명단에 언급되어 있다.<sup>48)</sup> 그는 1561년에 사망하였다.

제네바 후손의 세 번째 인물은 놀랍게도 필리베르 들 라 마르(Philibert

43) Naphy,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177, 211.

44) RCP 1:81.

45) Galiffe, *Notices généalogiques*, 1:305

46) Naphy,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76, 190, 219.

47) Naphy,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210–11. 페르네(Pernet)의 사회적 지위는 218에 기술되어 있다.

48) RCP 1:90.

de la Mar)였다. 그는 필리베르와 프랑수와 다니엘 베르텔리에르(François Daniel Berthelier)뿐 아니라 장 밥티즈 셉트(Jean Baptise Sept)의 친구였고, 젊은 세대인 제네바 토박이들(Enfants de Genève) 중 한 사람이었다. 1551년 전후로 이 “분노에 찬 청년들”은 시의회와 교회 치리회에 문제를 가져다 주었다. 들 라 마르(De la Mar)는 아마도 볼섹의 견해나 혹은 반체제적 성향에 동조를 했을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필리베르 들 라 마르는 1551년 8월 사생아를 낳았다고 고발 당했다. 생후 15일 된 아기가 그의 현관에 있었다.<sup>49)</sup> 청년 들 라 마르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했을 것이다. 아니면 볼섹이 일으키게 될 문제를 예상했던 것일까?

## 유력한 피난민들

명단에 올라 있던 다른 많은 이름들은 제네바에 정착한 피난민들이었다. “후작님”(Monsieur le marquis)은 가레아초 카라치올로(Galeazzo Carraciolo)였는데, 이탈리아 귀족인 비코(Vico) 후작의 후손이었다. 그는 노체라(Nocera) 공작의 딸 비토리아 카라파(Vittoria Carafa)와 결혼을 했지만 종교개혁의 믿음으로 개종한 후 결혼 생활과 여섯 아이를 포기했다. 망설이던 기간이 지난 후, 그는 나펠(Napels)의 집을 떠나 하인인 안토니오(Antonio)만을 데리고 1551년 6월 8일 제네바에 정착했는데, 볼섹의 사건이 터지기 넉 달 전이었다. 카라치올로는 즉시 그 도시에 있던 이탈리아 피난민들을 돌보았으며, 성 마들렌 교회당(St. Madeleine)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이태리어로 진행 되는 ‘성경공부모임’을 조직하였다. “칼빈과 다른 도시의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49) AEG Procès criminels, vol. 1, nos. 959, 963.

50)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143–65.

카라치올로의 개종을 기뻐하였다.”<sup>51)</sup> 그는 칼빈의 집과 가까운 샤누완느 거리(the Rue des Chanoines)에 집을 얻었다.<sup>51)</sup>

이탈리아 정착민 중 또 한 사람으로 “락탕스 레냉 씨”(Messire Lactance Regnyn) 즉 락탄치오 라그노니(Lactanzio Ragnoni)로 제네바에 있는 시에나(Siena)의 교리교육교사(catéchiste)였다. 1557년부터 2년 후 사망할 때까지 그는 이탈리아 ‘성경공부모임’을 위한 목사로 섬겼다.<sup>52)</sup> 그는 반삼위일체에 맞서는 투쟁에서 칼빈을 도왔는데,<sup>53)</sup> 아마도 1558년의 이태리어 신앙고백 작성에도 참가했을 것이다.<sup>54)</sup> 1559년 그의 『참된 교리와 기독교의 총론에 관한 양식』(Formulario nel quel si contiene tutta la somma della vera Dottrina et Religion Christiana), 즉 제네바에 있는 이탈리아 공동체[=교회]의 신앙선언 해설서가 피너윌(Pinereul)에 의해 출판되었다.<sup>55)</sup> 칼빈은 1559년 초 라그노니(Ragnoni)의 죽음과 그에 따른 이탈리아 교회의 손실을 슬퍼했다.<sup>56)</sup>

눈에 띄는 또 다른 피난민은 프랑스 출신으로, 1494년 님즈(Nîmes)에서 태어난 클로드 바뒤엘 선생(Maistre Claude Baduel)을 들 수 있다. 그는 님즈, 파리, 그리고 루뱅(Louvain)에서 공부하였고 1539년 파리에 서 교수가 되었으며, (마르거리트 당굴렘(Marguerite d’Angoulême)의 후원을 받아) 1540년 님즈에 있는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었다. 그는 1542년 이사벨 로즐(Isabelle Rozel)과 결혼하였다. 자신의 동료 기욤 비고(Guillaume Bigot)에 의해 루터주의자임이 드러난 후, 1548년에 사임

51) Doumergue, *Jean Calvin*, 2:470–71.

52) H. Heyer, *L’Eglise de Genève 1535–1909. : Esquisse historique de son organisation* (1909; repr., Nieuwkoop: De Graaf, 1974), 243. Cf. L. Grosheintz, *L’Eglise italienne à Genève au temps de Calvin* (Lau sanne, 1904).

53) 칼빈이 베르미글리(Vermigli)에게 보내는 편지: “Lactantio et mihi multum fuit negotii in pacandis turbulentis hominibus, qui dubitandi praetextu suis deliriis alios imbuebant” (CO 17:176, no. 2874).

54) 참조. CO 17:168, no. 2870; 본문: CO 9:385–89.

55) *Genève et l’Italie*, ed. Luc Monnier (Geneva: Droz, 1969), 109.

56) CO 17:468, no. 3024, 베르미글리에게.

하고 1550년에 제네바로 탈출하였고, 이곳에서 5년 후 1555년 5월 9일에 시민(bourgeois)이 되었다. 1556년 그는 (비록 목소리가 약했지만) 목사로 선출되었고,<sup>57)</sup> 니콜라 콜라돈(Nicolas Colladon)의 자리를 이어받아 판두우프르(Vandoeuvre)에서 섬겼다. 1560년 그는 장 타고(Jean Thagaut)의 후계자로 아카데미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나, 1561년 9월 8일의 사망으로 경력은 1년으로 그쳤다.<sup>58)</sup>

우리는 볼섹 사건을 따라가며 다시 한 번 클로드 바뒤엘과 마주치게 된다. 목사회회는 1551년 12월 18일, 금요일의 ‘성경공부모임’에서는 예정설의 교리에 전념하기로 했다. 보통은 연속강해(lection continua) 안에서 성경구절을 따라갔지만, 이 때는 특별히 모든 제네바 목회자들의 일치된 예정설 교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제네바 사람들 사이에서 일고 있던 볼섹에 대한 동정심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목회자들이 ‘성경공부모임’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 했고 그 후 칼빈은 대중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주목할 만한 유명한 반응은 학자 클로드 바뒤엘의 열정적인 신앙고백이다.<sup>59)</sup>

그러나 또 다른 피난민으로는 “몽팽종”(Monpinson)이 있었다. 이 사람은 1548년 나바르 여왕의 요청으로 제네바에 왔던 몽팽송의 신부(curé de Montpinchon)였을 것이다.<sup>60)</sup> 증인 명단에 있던 다음 사람은 프랑수와

57) RCP 2:66–67.

58) Borgeaud, *Histoire*, 1:72–73; Heyer, *L’Eglise de Genève 1535–1909*, 421; RCP, 2:93.

59) CO 8:108–11. 바뒤엘은 1551년 중반 리옹에서 도피할 때까지 칼빈과 편지를 주고 받았다 (CO 14:160–61). 후에 제네바에서 그는 칼빈의 설교와 (Rodolphe Peter and Jean François Gilmont, *Bibliotheca calviniana: Les oeuvres de Jean Calvin publiées au XVIe siècle*, vol. 1, *Écrits théologiques, lit téraires et juridiques 1532–1554* [Geneva: Droz, 1991], 53/4; 56/2) 장 크레스팽(Jean Crespín)의 『순교행전』(Acta martyrum)을 번역하였다. (Jean-François Gilmont, *Bibliographie de Jean Crespín*, 250 [56/7]). 바뒤엘은 기욤 뷔테(Guillaume Budé)의 『그리스 사전』(Lexicon graecolatinum)도 편집하였다 (Gilmont, *Bibliographie de Crespín*, 249, 54/10).

60) AEG Registres du Conseil, vol. 43, fol. 168r (communication by William G. Naphy, Aberdeen).

부르고앵(François Bourgoing)이다. 1515년 무렵 태어났으며 아그농 사람(sieur d'Agnon)인 그는 1545년 구체제의 목회자들을 대신해서 제네바에서 목회자가 되었고 1552년 시골로 옮겨갔다. 그는 1560-62년의 『막테부르그 세기들』(the Magdebourg Centuries)의 번역가였다. 자신의 『순교사열전』(Livres des martyrs)을 위해 이 책을 통해 이익을 얻은 인쇄업자 장 크레스팽(Jean Crespin)은 부르고앵의 딸 마르테(Marthe)와 재혼하였다.<sup>61)</sup> 많은 목회자들이 볼섹이 발언했던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했지만 증인의 명단에 이름이 언급된 목사는 부르고앵이 유일했다.

### 변호사들

제네바에 있던 프랑스 피난민들 중에 변호사들이 다수 있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제르맹 콜라동(Germain Colladon)으로 사법 전문가였다. 제르맹은 1508년에 태어나 그의 형 레옹(Leon)과 함께 부르쥬(Bourges)에서 법률을 공부했다. 그는 오를레앙(Orléans, 1527-30)에서도 가르쳤는데, 이곳에서 다른 법학도인 존 칼빈과 만났을 것이다. 제르맹은 자신의 고향 라 샤토르(La Châtre, Berry)에서 자리를 잡은 변호사였다.<sup>62)</sup> 1550년 두 형제는 제네바로 탈출했다. 제르맹은 퐁텐느 사람(sieur de Fontaines) 나콜라 비고(Nicolas Bigot)의 딸 기농(Guignon)과 결혼하였다. 그들의 딸 안느 콜라동(Anne Colladon)은 책 판매상이자 칼빈의 가까운 친구인 로랑 드 노르망디(Laurent de Normandie)와 결혼하였다. 1555년 8월 22일, 로랑은 시민(bourgeois)이 되었다. “docteur ès

61) Gilmont, *Jean Crespin*, 153, 216.

62) 제르맹 콜라동(Germain Colladon)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Erich-Hans Kaden, *De jurisconsulte Germain Colladon, ami de Jean Calvin et de Théodore de Bèze*, Mémoires publiés par la faculté de droit de Genève 41 (Geneva: Librairie de l'Université Georg, 1974). 프랑스 망명인 사회에서 유력한 인사들과 결혼을 통해 맺은 관계들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Naphy,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129.

droits, gratis, au respect des agréables services qu'il a fait et peult faire”(법학 박사, 무료로 그가 제공한 그리고 여전히 제공하고 있을 훌륭한 봉사와 관련하여).<sup>63)</sup> 예를 들면, 제르맹 콜라동은 미셸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가 체포된(1553년) 후, 들 라 퐁텐느(De la Fontaine)를 위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스페인 사람들을 고소했었던 사람으로 감옥에 수감 되어 있었다. 몇 년 후에 제르맹의 법률적인 능력은 제네바에서 그리고 1594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공 되었다. 제르맹과 레옹 두 형제는 볼섹의 소송 사건의 증인 명단에 올라 있다.

이 두 사람 외에 세 번째 콜라동이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는 레옹의 아들 니콜라(Nicolas)였다. 니콜라 콜라동(Nicolas Colladon)은 1549년 로잔(Lausanne)에서 공부했고 1552년 9월 29일 리브 학교(Collège de Rive)에서 시험을 봤다. 그는 1553년에 판두우프르에서, 그리고 1557년에는 제네바에서 목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필리베르 그레네주니어(Philibert Grené Jr.)와 더불어 성경공부를 방문한 학생 중 한 명이었다.

### 친구들과 집사들

볼섹이 체포된 후 작성된 증인 명단에는 칼빈의 가까운 친구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 그들 중에는, 집사들의 주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제네바의 단체, 부르즈 프랑세즈(Bourse française)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다. 기욤 뷔데(Guillaume Budé)의 아들 중 한 명인 장 뷔데(Jean Budé)는 파리에서 법률자문위원이요 청원지도자(counselor and master of request)였고, 프랑스 왕가의 주교(ordinary)였다”<sup>64)</sup>

63) *Livre des bourgeois*, 241.

64) Jeannine E. Oi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89), 148-60.

그는 또한 그리스어 학자이자 문헌학자였다. 칼빈은 파리 시절에 뷔데 가족을 방문하였다. 기욤이 사망한 후, 그의 미망인과 자녀들은 제네바로 이주했다(1549).<sup>65)</sup> 1551년 장(Jean), 루이(Louis), 그리고 마르거리트(Marguerite)는 제네바에 머물렀다. 그러나 같은 해 루이가 사망했다. 1554년 프랑수아(François), 앙투완느(Antoine), 그리고 카트린느(Catherine)도 이 도시로 옮겨왔다. 장은 칼빈과 가까운 샤누완느 거리(the Rue des Chanoines)에 있는 집에 살았다. 1555년 5월 2일 장은 시민(bourgeois)이 되었다. 그는 부르즈 프랑세즈(Bourse française)의 최초 행정관(기 드 티약(Guy de Tillac)과 피에르 말도나드(Pierre Maldonnade)의 도움을 받는)이었고 여러 가지 임무를 맡아 이 도시에서 일했다.<sup>66)</sup>

성경공부에 평신도로 참석한 장 뷔데의 처남인 장 드 종비비에르(Jean de Jonvilliers)는 후에 칼빈의 개인 비서가 되었다. 파리에서 공부하는 동안 장 드 종비비에르는 뷔데 가족들과 친하게 되었고 제네바로 따라왔다. 그의 여동생 마리(Marie)가 1549년 장 뷔데와 결혼했다. 미혼인 드 종비비에르(de Jonvilliers)는 장과 마리의 집에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155년 8월 28일 종비비에르는 제네바에서 거주민의 지위를 얻었으며 1556년 1월 30일에는 시민(bourgeois)이 되었다. 딸 셋에 외동 아들이자 그는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샤를 드 조앙(Charles de Joan (또는 Jouan)), 종비비에르의 영주(seigneur de Jonvilliers)라는 것이었다. 그는 1563년에 200인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1569년부터 영구히 집사로 섬겼다. 그는 1590년 5월 20일 약 74세로 제네바에서 사망하였다.<sup>67)</sup> 뷔데와 더 종비비에르는 칼빈의 기초 강의

65) 다음 참조. Jeannine E. Olson, "Les amis de Jean Calvin: La famille Budé," in *Calvin et ses contemporains. Actes du colloque de Paris 1995*, ed. Olivier Millet, Cahiers d'Humanisme et Renaissance 53 (Geneva: Droz, 1998), 97-105.

66) Olson, "Les amis de Jean Calvin," 102-3.

주석집 편집에 참여했다.

티약 사람(monsieur de Thillat(Du Tillac, 혹은 Du Thillac) 기 드 세리냐크(Guy de Serignac)은 프랑스 가스코니(Gascony)에서 왔다. 그는 피에르 드 말도나드와 장 뷔데와 함께 부르즈 프랑세즈의 행정을 담당했던 최초의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이였다(1550). 기(Guy)는 루이 뷔데(Louis Budé)의 미망인 바르브 르 부크 뒤 베리(Barbe Le Bouc de Berry)와 결혼하였고 1552년 10월 12일에 사망하였다. 그와 장 뷔데의 제수인 뒤 티약 부인(mademoiselle Du Tillac)은 부르즈 프랑세즈의 책에서 기증자로 언급되어 있다.<sup>68)</sup>

말도나드 출신의 피에르(Pierre, sieur de Maldonnade)는 벨기에 르 헤노(le Hainaut)의 블라통(Blaton) 출신이다. 그는 1549년 5월 3일에 거주민(habitant)이 되었으며, 기 드 세리냐크(Guy de Serignac)과 장 뷔데와 함께 부르즈 프랑세즈를 맡아 돌보던 최초의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이였다. 1554년 6월 피에르의 사망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주님께서는 유능하고 신실한 집사 말도나드를 우리에게서 데려 가셨습니다."<sup>69)</sup> 뷔데, 드 종비비에르, 드 세리냐크, 드 말도나드, 이 네 사람은 교회의 집사 직분을 담당했고 성경공부에 자주 참석했다.

### 교사들과 의사들

볼섹 사건의 또 다른 증인으로는 성경공부에 참석 하면서 칼빈과 가까웠던 "학교 교사 에녹 씨"(M. Enoc, maistre de l'école)가 있었다. 에녹 이전의 교사는 세바스티앙 카스텔리오였다. 베리(Berry)의 이수탱(Is-

67) 일대기를 위한 정보는 다음 참조: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248-49, J. Bonnet, *Récits du seizième siècle*, 2nd ed.을 근거로한. (Paris: Grassart, 1875), 102-42.

68)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83-84, 87-88, 126, 229 n. 30.

69) 비레(Viret)에게 보내는 1554년 6월 23일자 편지(CO 15:176, no. 1978).

soudun) 출신 루이 에녹(Louis Enoch)은 1549년 피난민으로 제네바에 왔다. 그 다음에 그는 리브 학교(Collège de Rive)에서 교사가 되었다. 1551년 장 크레스팽이 에녹의 그리스어 문법책을 출판하였다.<sup>70)</sup> 1556년 에녹은 클로드 바뒤엘과 함께 제네바에서 목회자로 선출되었고 목사회 의 서기로 일했다.<sup>71)</sup> 1556년 1월 21일에는 시민(bourgeois)이 되었다. 교육 제도의 개혁이 목회자들의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학교의 수장인 에녹이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sup>72)</sup>

또한 두 명의 제네바 출신 의사가 성경공부 참석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프랑수와 샤푸이(François Chappuys)와 필리베르 사라쟁(Philibert Sarrazin)이 그들이다. 의사(medicin) 샤푸이 역시 볼섹의 소송 회의록에 목회자들과 볼섹의 발언을 프랑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은 위원회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sup>73)</sup> 1543년 소의회의 기부로 칼빈의 편집자 장 지라르(Jean Girard)는 이 의사의 전염병 치료에 관한 책, 『전염병을 억제하는 확신하고 진실한 치료에 관한 요약본』(Sommaire contenant certains et vrais remedes contre la peste)을 출판하였다.<sup>74)</sup> 그가 칼빈 후원자에 속했던 것 같지는 않다.<sup>75)</sup>

두 번째 의사는 샤룰루와(Charolois)의 성 오벵(St. Aubin) 출신 필리

70) Gilmont, *Bibliographie de Crespin*, 1:51/15 (p. 18).

71) RCP 2:79 n. 5. 참조. Amédée Ropet, "Louis Enoch, ou un régent du seizième siècle," *Etrennes genevoises*, 2nd series (Geneva, 1878): 33-46.

72) 목사회 회의록에 있는 추천서에는 뇌샤텔(Neuchâtel) 관할 구역의 마을에 있는 학교의 교장이라고 불리는 노르망디 출신 니콜라 페스티르(Nicolas Pesteurs)의 "par les freres en la Congregation" 라고 기록되어 있다. RCP 2:65.

73) CO 8:492, 495.

74) Jean-François Gilmont, "Bibliotheca Gebennensis: Les livres imprimés à Genève de 1535 à 1549," *Genava* 28 (1980): 238; Naphy,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91. 샤푸이(Chappuys)는 1547년 12월 우리의 황제 아미 페렝(noster Caesar, Ami Perrin)과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 단의 일원이었다. CO 12:642, no. 983. 칼빈이 파렐에게 보낸 편지.

75) 목사회 회의록에는 이 갈등이 1554년 말에 목사들과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다고 기록하였는데, 그 두 사람은 파르주 출신(sire de Farges) 마테오 그리발디 모파(Mattheo Gribaldi Mofa)와 "의사 프랑수와(François medicin)"였다. (RCP 2:65). 만일 맨 마지막에 보이는 사람이 프랑수와 샤푸이(François Chappuys)와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칼빈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을 것일다.

베르 사라쟁(Philibert Sarrazin)이었다. 리옹(Lyon)에서 의사였던 그는 1550년에 제네바 거주민(habitant)이 되었으며 1555년에는 시민(bourgeois)이 되었다. 칼빈의 주치의 베네딕트 텍스토르(Benedict Textor)가 사망한 후 사라쟁은 진행성 질병들을 앓고 있던 칼빈을 돌보았다.<sup>76)</sup>

### 인쇄업자 - 출판업자들

1550년의 성경공부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세 명의 출판업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은 칼빈의 출생지이기도 한 피카르디(Picardie)의 누와용(Noyon) 출신 로랑 드 노르망디(Laurent de Normandie, ca. 1516-69)였는데, 칼빈의 가장 오랜 친구 가운데 한 명이었다. 드 노르망디는 1548년 제네바에 도착하여 성공적인 출판업을 시작하였다. 1549년 5월 2일에 거주민(habitant)이 되었고, 1555년에는 시민(bourgeois)이 되었다.<sup>77)</sup> 그는 레옹 콜라돈(Leon Colladon)의 딸 안느(Anne)과 결혼하였다. 칼빈은 자신의 소논문 『장애물들에 관하여』(De scandalis(1550). "스칸달론"으로 알려져 있음)를 드 노르망디에게 헌사 하였다.<sup>78)</sup>

동일한 직업과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로는 장 크레스팽(ca. 1520-72)이 있었다. 그는 제네바의 주요 인쇄 출판업자였으며, 또한 순교자열전의 연구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아라(Arras)의 높은 귀족으로 루벵에서 법률을 공부하였다. 1548년 제네바에 도착하였고(1551년 8월 25일에 거

76) 참조. CO 20:252-54. 의사 몽펠리에르(Montpellier)에게 칼빈이 보낸 편지. Doumergue, *Jean Calvin*, 2:271.

77) H. -J. Bremme, *Buchdrucker und Buchändler zur Zeit der Glaubenskämpfe: Studien zur Genfer Druckgeschichte* (Geneva: Droz, 1969), 17-27.

78) Jean-François Gilmont, "Les dédicataires de Calvin," in *Calvin et ses contemporains*, ed. Olivier Millet (Geneva: Droz, 1998), 122.

주민(habitant)이 되었고 1555년에 시민(bourgeois)이 됨.), 1550년에는 콘라드 바디우스(Conrad Badius)를 지지하였다.<sup>79)</sup>

세 번째 인물은 다름 아닌 로베르 에스티엔느 1세(Robert I Estienne, ca. 1500-1559)인데, 그는 1550년 11월 제네바에 도착한 파리 출신의 성경학자, 사전편찬자, 그리고 인쇄-출판업자였다. 그의 세 아들, 프랑수와(François), 로베르(Robert), 앙리(Henri)는 그의 뒤를 이어 사업을 주도했다. 로베르 1세(Robert I)는 최초의 불가타(the Vulgate) 비평판 집판과 『라틴어 백과사전』(Thesaurus linguae latinae)과 이중언어사전들을 출판했다. 그가 만든 1550년판 그리스어 신약성경은 수세기 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표준 교과서로 간주 되었다.<sup>80)</sup> 그는 제네바에서 비레(Viret)와 베자(Beza)와 칼빈의 라틴어 책을 포함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의 최종판을 출판했다. 에스티엔느(Estienne)는 자신의 기획작품인 『새로운 주석집』(Nova Glossa Ordinaria)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중세시대 성경학문의 표준 작품을 최신의 개신교 버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했다. 1553년의 라틴어판은 처음 세 복음서를 다루었다. 일 년 후에 등장한 불어판에는 요한복음도 포함되어 있다. 세월의 패턴에 주목하라. 에스티엔느는 1550년에 제네바에 도착했고 1553년에 이 성경학문의 도서를 출판하였다. 1550년에서 1553년에는 ‘성경공부모임’에서 요한복음을 공부했고,<sup>81)</sup> 그 후에 공관복음(1553-55)을 공부했다.<sup>82)</sup>

79) *Oxford Encyclopedia of the Reformation* (hereafter OER), 1:452-53; Jean-François Gilmont, *Jean Crespin: Un éditeur réormé du XVIe siècle* (Geneva: Droz, 1981).

80) OER 2:69-70.

81) CO 21:72.

82) CO 21:76.

## 부자들

1550년 10월 16일의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한 명단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만 추측해 볼 수 있다. 보르가르 출신(sieur de Beauregard) 저술가 에스티엔느는 피난민으로 제네바에 들어왔고, 1550년에 거주민(habitant)의 지위를 얻었다. 부부르즈(Bourse)의 기증자인 그에게는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었다.<sup>83)</sup> 도피네(Dauphiné)의 튀렝(Tullins) 출신인 클로드 들 라 쿠르(Claude de la Court)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는 1558년 2월 14일에 거주민(habitant)이 되었다.<sup>84)</sup> 그의 이름은 “베자(Monsieur de Bèze)의 시편”<sup>85)</sup> 출판과 관련한 부르즈 프랑세즈의 다양한 활동을 설명할 때 등장한다. 리옹(Lyon) 출신 클로드 드 메스트르(Claude le Maistre)는 1550년대 부르즈 프랑세즈의 기증자로 언급되어 있다. 그는 1550년 9월 9일에 거주민(habitant)이 되었는데, 인쇄업자 장 크레스팽의 친구이고 나콜라 피코(Nicolas Picot)의 친척이었다.<sup>86)</sup> 크레 출신(seigneur de Cré) 르네 드 베이(Monsieur René de Baif)는 1550년대 부르즈 프랑세즈의 기증자로 언급 되었다. 증인 명단에 그의 숙소는 “말도나도(Mal-donaddo)와 함께 살고 있고” 라고 적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네 사람은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했다. 적어도 여러 참석자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 준 제롬 볼섹의 소란이 있던 그 금요일에는 참석했다.

83)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120-21.

84) Geisendorf, *Livre de habitants*, 1:116.

85)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67-68, 198.

86) Gillont, *Jean Crespin*, 43.

## 가난한 사람들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인물들의 이름이나 묘사가 증인 명단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한 종류의 명단에는 “마조르 데 자르 씨(Mr. the Major des Art) 집에 머문 네 사람”이라고 기록 되어 있다. 기욤파의 일원인 자크 데 자르(Jaques des Arts(Desarts))는 1545년 초부터 의원으로 소의회에서 일했다. 그는 1545년 이후로 여러 번 시행정장관직(=시장)을 맡았고, 1551년에도,<sup>87)</sup> 1554년에는 재무관(treasurer)이었다. 그의 가족은 누구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네 사람을 머물게 할 정도의 재력은 되었다. 살로몽 도를레앙(Salomon d'Orleans)과 함께 머물렀던 “드 말레장”(Mr. de Malezan)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아마도 살로몽 도를레앙(1550년 4월 11일에 제네바 거주민(habitant)이 됨)의 하인이었을 것이다. 블레-슈르-루와르(Blais-sur-Loire) 출신인 그의 주인은 1556년 12월 17일에 시민(bourgeois)이 되었다. 드 말레장(De Malezan)은 분명 프랑스에서 주인과 함께 왔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름, “라 마들렌느(la Madeleine) [교회의] 근처에 사는” 부리앙(Burian)의 이름은 거주민(habitant)이나 시민(bourgeois)의 명단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는 아마도 그 도시에 임시로 머물게 된, 태생이 변변치 않은 피난민이었던 것 같다.

관리들은 그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하여 증언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잘 알려진 사람이든 덜 알려진 사람이든)의 명단을 꼼꼼히 작성하였다. 이것은 1551년 10월 30일에 작성되어 검사가 이용하였다. 11월 첫 주에 ‘성경공부모임’ 참석자 중 일곱 명이 실제로 증언하였다. 그들은 제르맹 콜라동, 장 들 라 매조뇌프 후작, 장 뷔데, 락탕스 라그논(Lactance Ragnone), 샤를 드 종비이에르, 그리고 레옹 콜라동 등이다. 그들은 12

87) RCP 1:90.

개 조항에 대한 증언을 요청 받았다.<sup>88)</sup> 볼섹이 실제로 ‘성경공부모임’에서 했던 발언을 기록하고 구성한 그들의 증언은 남아있다.<sup>89)</sup> 볼섹은 이단이라는 전제로 다루어 진 것은 아니다. 이 일곱 명의 증인 중 세 명이 11월 6일 감옥에 있는 피고소인을 대면했는데, 나플러(Naples)의 후작과 변호사인 레옹과 제르맹 콜라동 두 형제가 그들이다.

증인의 명단에 올라 있는 다른 이름으로는 시몽 드 생-폴(Simon de Saint-Paul(Noble de St. Pol이라고 씌어진))이 있다.<sup>90)</sup> ‘성경공부모임’에서 그가 뭐라고 증언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는 개입 되고 싶어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의 이름은 증인 명단에 포함 되어 있지 않거나 신뢰성이 없어 제외 되었을 수도 있다. 그는 예정설에 대해 칼빈의 반대파이며<sup>91)</sup> 베베이(Vevey)의 설교자 프랑수와 드 생-폴(François de Saint-Paul)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삼십 명의 명단이 현재 우리 목적을 위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이것은 일반적인 모임과 정기적인 참석자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볼섹 때문에 발생한 특별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가? 볼섹의 등장을 기대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다. 아마도 볼섹과 가까운 누군가가 그 금요일에 이 의사가 출석 할 것 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이

88) CO 8:186-87 (날짜가 적히지 않은, 칼빈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RCP1:108-9 (Double des articles ...)에서 12번 째 항목은 소실 되었다.

89) CO 8:188-93.

90) CO 8:183-84. “Honorable Symon de Sainct Paul, born in Picardie,”는 그의 형제들인 크리스토폴러(Christoffle)와 토마스(Thomas)와 함께 1550년 6월 7일 주민으로 인정 받았다 (Geisensdorf, *Livre des habitants*, 1:7). 생 폴(Saint Paul)은 볼섹의 지지자 테일러 자크 고다르(Jaques Godard)를 심의한 교회치리회에 1551년 11월 참여하였다. 볼섹 사건이 끝난 직후 12월에는 생 폴 자신이 선택(election)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참조, Robert M. Kingdon, “Popular Reactions to the Debate between Bolsee and Calvin,” *Calvin: Erbe und Auftrag. Festschrift für Wilhelm Neuser zu seinem 65. Geburts tag*, ed. W. van 't Spijker (Kampen: Kok Pharos, 1991), 142..

91) Henri Vuileumier, *Histoire de l'Eglise Réformée du Pays de Vaud sous le régime bernois* (Lausanne, 1927-33), 1:648; 4:702-3.

사실이 필리베르 들 라 마르와 시몽 드 생-폴의 참석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참석자의 명단을 보면 지지자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칼빈은 그 특별한 ‘성경공부모임’이 시작 할 때 없었던 것으로 보아 특히 볼섹의 방문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곳에 출석한 누군가가 알려 주었을 것이다.<sup>92)</sup> 볼섹은 1551년 초 두 차례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였다.<sup>93)</sup> 그러나 1551년 10월 16일 일상적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가한 그의 등장이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정보는 없다. 그 자료는 자칫 그저 눈에 띄지 않고 지났을 평범한 ‘성경공부모임’의 궤도 이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볼섹 사건에 등록된 증인 목록은 1551년 금요일 성경 모임에 참석한 일상적인 사람들로 봐야 한다.

도시와 근교의 목회자와 함께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한 평신도 그룹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최소한 두 명의 제네바 태생 관리들(장 드 메조뇌프와 장 페르네), 제네바의 이단아(끔찍스러운 아이(enfants terrible), 필리베르 들 라 마르); 칼빈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유력한 피난민들(갈레초 카라치올로와 란탄치오 라그논과 같은 이탈리아 공동체 출신 두 사람, 클로드 바뒤엘과 같이 프랑스 출신들); 부르즈 프랑세즈의 관리들(장 뷔데, 기 드 티약, 피에르 말도나드)과 이 조직의 여러 집사들과 기부자자들.

제네바 사회 경제에서 유력한 다양한 종류의 직업들이 청중에 반영되었다: 인쇄-출판업자(콘라드 바디우스, 로랑 드 노르망디, 장 크레스팽, 로베르 에스티엔느), 변호사(레옹 콜라동과 제르맹 콜라동) 의사(제롬 볼섹, 프랑수와 샤뮈, 필리베르 사라쟁), 교사(세바스티앙 카스텔리오, 루이 에녹), 상인(필리베르 그레네 주니어, 나콜라 콜라동), 몇 명의 장인(목수 에

92) 니콜라 콜라동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Or pensoit cest effronté avoir trouvé occasion de seduire le peuple, pource que Calvin n'avoit assisté à ladite Congregation cependant que le proposant parloit ... Dieu voulut toutesfois que Calvin survint un peu apres les premiers propos de Ierosme, qui n'apperceut point”; CO 21:73.

93) CO 8:154-55.

메 뒤 낭, 리본 제작자 샤를 볼랑 등).

자닌 올슨(Jeannine Olson)은 다음과 같은 이름을 칼빈의 가까운 친구 범주에 넣었다: 루이, 프랑수와, 장 뷔데 형제들, 로랑 드 노르망디, 제르맹 콜라동과 그의 형제 니콜라스 콜라동, 샤를 드 종비비에르, 갈레아초 카라치올로, 니콜라 데 갈라르(Nicolas des Gallars), 그리고 칼빈의 형제 앙투완느.<sup>94)</sup> 이 모든 사람들이 볼섹이 문제를 일으킨 그 날에 참석하였다(이미 사망한 루이 뷔데(Louis Budé)와 이 날에 아직 제네바에 도착하지 않은 프랑수와를 제외하고).

이 그림은 특히 엘리트, 주로 프랑스 출신으로 칼빈과 가까운 사람들이 목사회의 성경공부에 참석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목수와 리본 제작자의 이름이 증명해 주듯이 장인들도 역시 출석했음을 알 수가 있다. 볼섹의 기소를 위해 작성된 증인들 명단에 이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신분이나 지위가 변변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여자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sup>95)</sup> 그러나 보통은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한 기록이 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참석은 제네바의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고 빈번했을 것이다. ‘성경공부모임’에서 일반인들이 엘리트들 옆에 참석하여 자리를 차지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성경공부가 프랑스어(학문적인 라틴어가 아닌)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성경공부모임’이 그 시 작부터 제네바 사람들에게 개방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료만으로는 그들의 토론 참여를 많이 볼 수는 없다. 단지 주목을 끄는 이단설만이 기록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인쇄업자, 교사, 의사 그리고 변호사들은 성경 공부 중에 토론에 참가 했으리라 짐작하지만, 그들의 발언은 기록 되어 있지 않다. 목사가 아닌 사람의 참가는 단 한차례의 예만 남아있다: 1551년 12월 18일 금요일에 열린 ‘성경공부모임’에서 클로드

94) Olson, “Les amis de Jean Calvin: la famille Budé,” 98.

95) 볼섹의 재판 중과 그 후에 여러 차례 남자 그리고 여자(Andruc) 등이 제네바 의회 앞에서 볼섹에 대한 지지와 그의 예정설 교리에 관한 견해를 설명하라고 소환되었다 (다음 참조, Kingdon, “Popular Reactions,” 138-45).

바뒤엘이 예정설 교리를 향해 고백했던 열정적인 참여가 그것이다.

1550년에 피에르 파올로 베르게리오는 이렇게 적고 있다. 제네바에서는 “참가한 사람들에게서 많은 경험을 얻었다,” “목사들뿐 아니라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으로부터”라고. 그러나 자료에는 이런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성경해설은 목회자들의 토론이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평신도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성경공부 그룹을 만들자는 -1550년대에 적어도 두 번- 제안이 평신도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특별 형식은 오래 지속 되지 않았고, 보통의 ‘성경공부모임’은 자료에서처럼 그렇게 폐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신도들-제네바 사람들과 피난민들-은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고 개혁주의 신학의 교리를 토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비록 그들의 참여는 더 나중의 퓨리탄 “설교실습”(Prophesying)에서 만큼 중심적이지는 않았지만, 취리히에서 열린 학문적 성격의 예언회(Prophezei)에서 보다는 중요했다. 비록 제네바의 ‘성경공부모임’이 성직자들의 말씀 훈련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평신도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이 도시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이 모임은 신학자들과 제네바 종교개혁에 동조하는 학자들과의 유대를 강화 했다.

## 칼빈과 이슬람\*

“인간의 본질은... 끊임없는 우상 공장이다.”  
(『기독교강요』 I.xi.8)

스튜아트 보닝턴(Stuart Bonnington)

### 오스만 제국의 위협

존 칼빈의 생애(1509-1564) 동안 오스만 제국의 세력은 최고조에 이르러, 기독교 유럽에 매우 심각한 군사적, 종교적 도전을 제기했다. 이슬람 세력은 동방과 대륙의 중앙 지역과 환 지중해 연안으로 그 세력 확장을 추구했다. “중북부 유럽 민족 중 오스만 투르크와 회교도는 동의어로 간주되었다.”<sup>1)</sup> 루터가 95개 조항을 게재한 1517년, 오스만 군대는 이집트를 정복했다. 술레이만 1세는 1521년에 벨그라드를 장악했고, 한 해 후엔 로도스 섬이 이슬람 대제국의 통제 하에 놓였다. 헝가리 군대는 모하치 전투에서 패하여 왕은 죽었고, 1526년에는 국가가 합병되었다. 삼 년 후, 오스만 군대는 비엔나를 포위했다. 결국 이슬람 군대가 그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긴 패망기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슬람으로 인해 기독교 유럽 세

\*) 이 글 “Calvin and Islam”은 호주 멜버른에서 에서 발간되는 신학지 *Reformed Theological Review*, Vol. 68/2 (August, 2009), 77-87에 게재된 것을 번역한 것임, 필자인 스튜아트 보닝턴(Stuart Bonnington)은 웨스턴 오스트레리아대학,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신학대학에서 수학하고 호주신학대학에서 공부한 역사신학자이자 목회자이다, 현재 서부 호주 퍼스(Perth) 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일하는 한편 여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1) Gregory J. Miller, “Reformation understanding of Islam,” 출전 Robert Benedetto 편 집,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Church Histo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8), 제1권, 187.